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코로나 시국 제주 예술인 복지 정책

지자체 예술인복지센터 확대 속 제주는 감감

2014년 예술복지 조례 제정
부산시는 이듬해 실태조사
2017년 예술인센터 첫 개소
제주는 창작융자 지원 사업
한해 4000만원 배정에 그쳐

코로나19 시국속에서 안전망이 위협받는 이들 중 하나가 예술인이다. 창작 활동으로 거두는 월 수입을 셈하는 일이 민망할 정도였는데 감염병 여파로 더 힘들어졌다.

제주에서는 이미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생겼다. '제주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우선 순위에 밀리는 모양새다.

▶감염병 사태 예술인복지 강화 움직임=전국 광역문화재단은 코로나 장기화에 예술인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조성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 처음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세운 곳은 부산시다. 부산시는 2017년 2월 부산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제주도와 같은 시기인 2014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는 이듬해 부산예술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2년 뒤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올해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는 반딧불이 사업,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사업, 부산 예술인 아카이빙 사업, 예술인 컨설팅 매칭,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예술인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운영 등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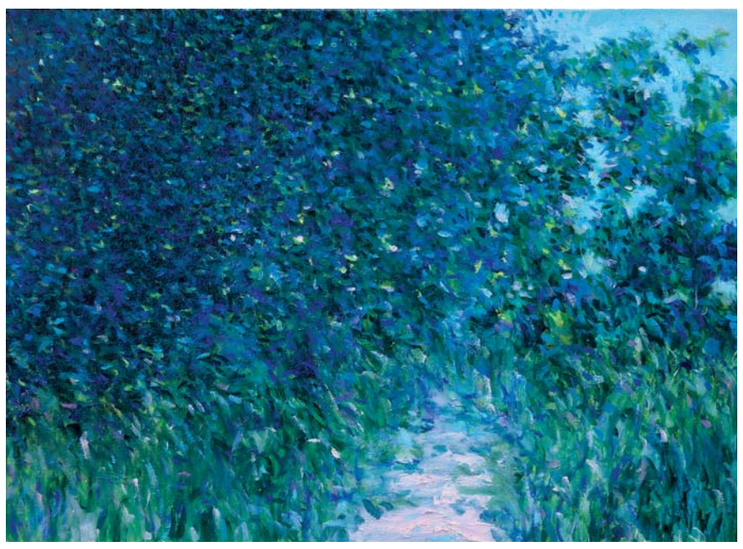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는 다른 지자체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도 재촉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지원센터 설치에 나섰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월 전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구축 계획을 내놓았다. 대전문화재단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인 복지 향상과 권리 보장을 취지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증가 한편에 잠자는 조례=제주도는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과 예술경영 컨설팅을 벌여왔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창작융자 지원은 창작공간 시설 신축·개보수 등이 가능한 시설 자금이나 창작공간 매입비 등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예술인은 원금만 상환하고 제주도가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9월 이래 지금까지 34건을 지원했다. 예술경영 컨설팅은 법률, 회계, 홍보, 예술 지원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지난해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500만원(추경 포함)에 그쳤다. 올해는 본예산 4000만원이 전부다. 조례 상 명시된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지만 2019년에 이미 해를 넘겼다.

현재 제주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의 필수 자격조건인 '예술활동증명'을 취득한 예술인은 609명에 이른다. 2017년 306명, 2018년 413명, 2019년 547명 등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예술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관련 조례에는 예술인 권익보호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인복지센터 등 명칭 변경을 포함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기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박길주의 '바람 좋은 날'.

자연이 던지는 치유와 소통 메시지

박길주·홍시야 작가 2인전
5월 한달 동안 비오토피아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두 작가가 자연이 주는 치유를 공통점으로 만났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서귀포시 안덕면에 자리잡은 비오토피아 갤러리에서 열리는 박길주·홍시야 2인전이다.

이번 전시는 제주 자연을 매개로 작업한 회화 작품을 통해 마음의 쉼터를 안겨주는 자리로 기획됐다. 두 작가가 하나의 공간에 서로 다른 작품을 펼치듯,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전시장에는 박길주의 '바람 좋은 날', 홍시야의 '공존' 등 25점이 나왔다. 거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는 사회 속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지만 그림이 끌어낸 자연의 메시지를 통해 소통을 꾀하도록 이끈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선희기자

제주소묵회 단오 앞둬 '살랑살랑 부채전'

더위가 찾아드는 단오를 앞두고 그림과 글씨를 입은 시원한 부채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제주소묵회(회장 김형석)가 올해로 다섯 번째 치르는 '살랑살랑 부채전'이다.

이 전시는 단오에 즈음해 부채를 선물하던 풍습에서 따왔다. 이번에는 제주소묵회원 26명이 참여해 기존 한문서예만이 아니라 한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넣은 부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수묵화 작가들도 찬조 출품했다. 더러는 제주소묵회 회원들이 글씨를 쓰고 수묵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등 합작한 부채 작품도 보인다.

부채전은 5월 30일까지 갤러리 카페 지오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64)724-5201. 진선희기자

제주소묵회 백옥자·고예현 합작품.

색연필로 피운 꽃송이로 봄을 즐기리

설문대여성센터 '그리고'
보태니컬 아트 작품 전시

코로나19로 들녘의 봄을 맘껏 즐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색연필로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낸 자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보태니컬아트동아리 '그리고(Gri-Go, 회장 고승임)'가 펼치는 '빼앗긴 봄에도 꽃은 핀다'전이다.

이달 11일부터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입구에 있는 둘하나 갤러리 초대로 마련된 이번 전시엔 편리하고 효과적인 그림도구로 통하는 수채 색연필 등을 주로 사용해 그려낸 곶자왈, 제주의 꽃과 풀 등이 나왔다. 회원들이 식물의 특성을 자세히 관찰하며 갈고닦은 기량을 담아낸 40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이달 29일까지 계속된다.

동아리 '그리고'는 이종후 작가의 지도 아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태니컬아트 교육 수료생 3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외계층 등을 찾아가는 소품만들기 미술 프로그램, 장바구니 에코백 제작 등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문의 010-5274-2594. 진선희기자

김경숙의 '곶자왈로 간 해녀 3'.

문화가 쪽지

박물관 체험물 무료 나눔

지난 6일 재개관해 온라인 관람 예약을 받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이 '다시 만나는 리사이클 뮤지엄'이란 이름으로 관람객들에게 체험 재료와 교육 자료를 무료 배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중에서 유아~초등생 대상 체험물은 굿에 사용되는 영감 탈 만들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활용한 그림자 인형 만들기 세트, 제주 유배인이야기 컬러링 엽서 4종 세트, 특별전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제주를 비추다' 연계 컬러링 5종 세트 등이다.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 참고.

제주도립박물관 자료 수집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이 제주 고고·민속과 자연사 분야의 연구·전시 자료 구입을 하고 있다.

박물관은 특별·상설 전시와 연구·보전을 위해 제주 역사(고문서, 고지도, 고서화 등), 제주 민속(제주 혼례 등), 제주 근현대 생활사 분야 자료와 하반기에 예정된 제주 지질 특별전 관련 암석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자료 매도 신청은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엔 고고·민속, 자연사 분야에 걸쳐 총 743점을 구입했다. 문의 064)710-7703.

신화 원천소스 공모 열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 제주신화 콘텐츠 원천소스 스토리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161편이 접수됐다.

2회째인 이번 응모작 수는 전년도 59편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주최 측은 5월 중 당선작을 선정한 후 수상작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작년 수상작 '설문초등학교 수업일지'로 보드게임 애플리케이션과 만화책을 개발했다. 올해는 이를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공연콘텐츠로 확장한다.

제주브랜드 공연 재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브랜드 공연 개발을 위한 대본 공모사업' 재공모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4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으나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재공모는 이달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1차 응모작도 보완해 접수할 수 있다. 120분 내외 분량으로 800석 이상 규모 극장에서 공연 가능한 대본과 악보(창작곡)를 공모하며 작가와 작곡가 중 1인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참고.

축 CONGRATULATIONS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서 하 윤
신성여고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로스쿨 졸업
(父 : 서명균(명인플러스의원 외과원장))
(母 : 방인숙(명인플러스의원 내과원장))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정건설산업(주) 이영준
쌍 용 통 운(주) 고영철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

송 재 호
제21대 국회의원(제주시갑)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제일중학교 25회 동창회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장한 어버이상)

안 재 수
제48회 어버이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장한 어버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선면 세화2리 마을회 표선면 세화2리 노인회
표선면 세화2리 청년회 표선면 세화2리 부녀회

축 CONGRATULATIONS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홍대겸(구:충석)
父 : 홍현철(광양초 16회, 제동종합건설(주) 대표) · 母 : 김유신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 법대 졸업
한양대 대학원 수료 · 전북대학교 로스쿨 졸업(제9기)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양초등학교 제16회 동창일동